



한국의
명소 2

LOCK MUSEUM **쇠대** 박물관

글/사진 • Willy 기자



‘씻대박물관’은 「건축가 승효상」의 작품으로 『이로재』에서 디자인과 설계를 하였다. 내후성강판으로 만들어져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이 최초로 현역 건축가의 작업을 소장한 의의를 가지며, 특히 건축의 실용적 측면이 아닌 문화예술적 가치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하루만 지나면 몇 건물의 외관이 바뀔 만큼 풍경이 가볍고 어지러운 대학로의 환경에 세워진 ‘씻대박물관’은 파편적인 동승동의 도시풍경 속에 쇠의 묵중한 무게를 놓아 새로운 긴장을 조성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건물 입구에 있는 낚시하는 사람 조형물과 같이 최홍규 관장도 하나하나 소중하게 전시품들을 컬렉션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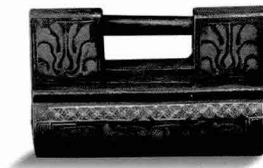


씻대란 열쇠의 방언으로 우리나라의 옛 자물쇠 및 세계 각국의 독특한 자물쇠를 주제로 한 박물관의 상징이자 이름이다. 자물쇠와 열쇠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자물쇠는 여닫게 된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말하며, ‘자물쇠’는 ‘잠금다’라는 뜻의 ‘자므다’의 파생동사인 ‘자물’과 ‘기물’을 뜻하는 명사인 ‘쇠’라는 말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로 ‘자물통’, ‘쇠통’ 또는 ‘소통’이라 하였다. 예로부터 자물쇠와 열쇠는 다양한 모습만큼이나 많은 의미와 정서를 가지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실용 공예품으로 여기 자물쇠의 역사와 자물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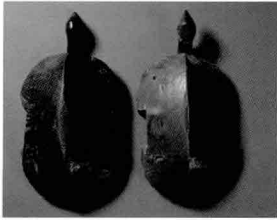
씻대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옛 자물쇠 및 세계 각국의 독특한 자물쇠를 주제로 한 박물관으로 사라져가는 우리의 자물쇠들을 수집, 보존 연구하며 대중에게 전시 활동을 통해 우리 자물쇠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우수성을 알리고자 최홍규 관장이 2003년 동승동에 설립하였다.

씻대 박물관은 자물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고 있으며 관람객 스스로가 자물쇠에 대한 문화적 의미와 미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흡수하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수용자 중심 문화형성에 기여함을 기대하고 있다.

자물쇠



자물쇠는 소형함에서부터 장, 농, 책장, 뒤주, 곳간, 대문에 이르기까지 도난방지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다. 사용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사용방법 또한 다양각색이 이었다. 이들은 다른 장식들과 미적 조화를 통하여 가구의 안정감을 강조, 품위를 높여주는 주요한 장식품이기도 했다. 이렇듯 실생활 속에 깊이 자리한 자물쇠는 수복강녕(壽福康寧)이나 부귀다남(富貴多男) 등 상서로운 글귀를 새겨 넣음으로서 사용하는 이의 번영과 장수를 기원하거나, 그 형태를 물고기, 거북 등으로 만들어 수호의 주술적 의미를 나타내었다.



빗장

조선시대 집안으로 들어서는 나무 대문의 잠금장치가 빗자이다. 대문을 가로질러 잠글 수 있는 나무로서, 이 빗장을 밀어 넣기 위해 덧대어 놓은 나무를 '둔테(빗장걸이)'라 한다.

둔테는 사각의 각목으로 만든 일반적인 형태가 있으나 장식을 위하여 둔테 몸통에 여러 가지 문양을 새겨 넣기도 하였으며 구복기원(救福祈願)을 위한 거북, 물고기, 벼들의 북 모양으로도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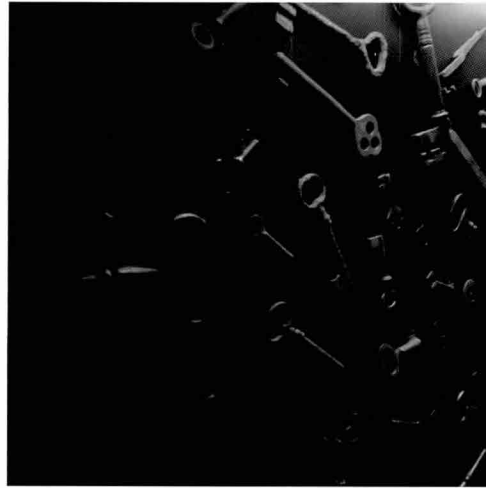


열쇠패

조선시대의 공예 중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생활에 두루 사용된 공예품으로 열쇠패가 있다. 목각이나 녹각으로 만들어진 패에 열쇠를 묶어 놓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열쇠에 대한 정보를 적어 놓아 많은 수의 열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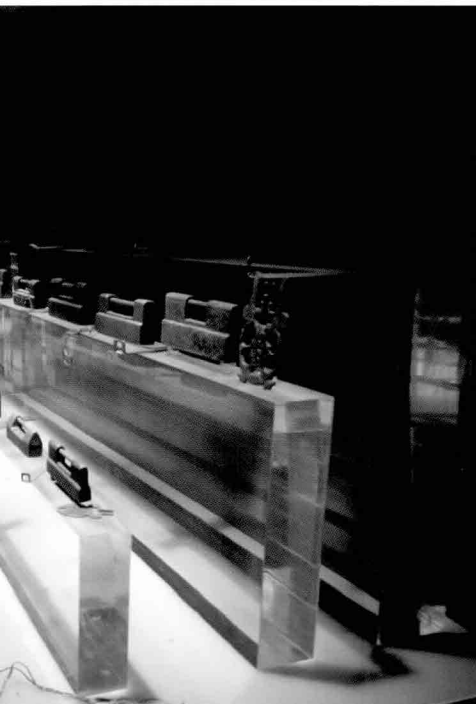
반면 금속 재질에 용, 봉황 등의 모양으로 패를 만들거나, 목재에 원형 또는 팔각으로 만들어진 패에 길상문을 새겨 넣기도 하여 집안에 걸어 놓아 나라의 안녕과 가족의 영달을 기원하는 장식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금속패나 비단천에 자수를 놓은 피에 별전을 가득 매달아 놓은 것들도 좋은 장식재가 되었으며 조선상류사회의 귀중한 혼수품으로 시집가는 딸에게 주어졌다.

'싯대박물관'에 들어서자 마주치는 풍경이다. 이끼정원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어 최홍규 박물관장의 컬렉션 의지가 녹아있는 공간으로 '싯대박물관'은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작품이다.





- ① 열쇠를 붙여 꾸민 전시실 입구 벽면으로 이곳에서부터 사실상의 전시가 시작된다.
- ② 쇠로된 거북모양 자물쇠는 매우 귀한 것으로 최홍규 관장이 가장 아끼는 자물쇠.
- ③ 비너함, 보석함 등 함에도 필수품이었던 열쇠와 자물쇠.
- ④ 최홍규 관장이 열아홉 살 무렵부터 컬렉션을 통해 수집한 열쇠, 자물쇠들.



최홍규 관장은 1976년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컬렉션을 시작해 1989년 강남에 '최가철물점'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어 다른 곳과 다른 차별화된 제품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꾸준한 사업 확장과 컬렉션을 통해 2003년 동송동에 '쇳대 박물관'을 설립했다. 현재도 논현동에서 최가철물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의 '문화적 마인드'가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주변인들에게도 '앞으로는 문화적 마인드 없이는 사업도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

앤티크라고 하면 흔히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를 생각하지만 50~100년 전 자물쇠도 앤티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앤티크가 아니면 미술품이라도 좋으니 관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해 즐기라고 말한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 즐기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서 무한한 지식의 세계로 저절로 연결됨을 스스로의 경험으로 터득한 것이다. 특히, '50~60대의 놀이터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는 어차피 수익성에 가치를 두고 있는 않으며 컬렉션을 통해 자카발전이 되는 에너지를 얻는다고 말한다. ㉠

